

일본의 순수문학 국내에 본격 출간

문학선·개인전집 등 다양한 기획... 유명작가 작품 중복출판 등 폐해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그동안 극히 미미한 소개 수준에 그쳤던 일본의 본격문학 작품들이 최근들어 상당수 번역돼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문학은 평범한 한국독자들에게는 「대망」 「빙점」의 나라로만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 여기에서 좀 나아가면 가와바타 야스나리나 미시마 유키오 등의 노벨상을 받았거나 유명한 작가 한둘이 더 기억될 뿐이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을 언급할 테고, 추리문학이나 SF에 관심이 있다면 「은하영웅전설」의 다나카 요시키를 최고로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일본문학은 우리의 세계문학 이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한양대 윤상인(일문학) 교수는 “해방이후 일본문학은 객관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을 과거관계에 얽매어 언제까지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외국문학」(94년 겨울호)이 마련한 ‘일본문학 특집’ 대담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문화를 바로보기 위해서, 일본근대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문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신적 근간이 되는 일본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 나가면서 일본문학 번역작업이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돌보이는 ‘20세기 일문학의 발견’ 시리즈

최근들어 일본문학의 번역·소개에 활발한 곳은 웅진, 고려원, 삼문, 문학사상사 등이다. 대표적인 곳이 웅진출판사. 이 출판사는 ‘20세기 일문학의 발견’ 시리즈와 ‘주요작가 작품선’을 기획, 지난해 말부터 산뜻한 장정으로 첫선을 보였다.

‘20세기 일문학의 발견’ 목록을 보면 일본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을 비롯해 이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어느 바보의 일생」, 미야자와 겐지의 「봄과 수라」,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산소리」,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사카구치 안고의 「활짝 핀 벚꽃 나무 아래서」, 오오카 쇼헤이의 「포로기」,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오에 겐자부로 「인생의 친척」, 다카하시 겐이치로의 「우아하고 감성적인 일본야구」, 무라카미 류의 「오후부의 세계」, 야마다 에미미의 「풍장

일본의 현대문학 작품들이 최근들어 활발히 번역 소개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문학 이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일본문학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은 ‘개인전집’

‘문학선’ 등 굵직한 시리즈의

기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 시마다 마사히코, 요시모토

바나나 등 대표적인 순수문학 작가들의

작품소개는 일본의 본격문학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 교실」 등 모두 12권이 들어 있다.

단행본팀의 김갑수 편집장은 “이 시리즈의 목록은 근대부터 신세대까지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구성돼 있고, ‘주요작가 작품선’에는 그의 국내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일본의 주목받는 작가들로 꾸며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지난 100년 동안 무엇을 고민해 왔고 20세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일본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일본 본격문학을 기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작품의 번역에 참가한 박유하, 조사옥, 고한범, 신인섭, 박혜성, 허호, 이창종 등은 각기 해당 작가를 전공한 이들도 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역자이자 기획위원의 한 사람인 박유하(세종대) 교수는 “연이어나올 2차분에는 일본 탐미문학의 대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를 비롯해 나카가미 겐지, 아베 코보, 이부세 마사지, 그리고 3대 여류작가에 손꼽히는 오바 미나코, 쓰시마 유우코, 가나이 미에코, 또한 시마다 마사히코, 마쓰다 미스코,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에 이르기까지 중견·신인을 망라해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선집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원도 일본 순수문학 쪽에 상당량의 번역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의 전집을 전 24권짜리로 준비하고 있는 고려원은



최근 일본의 순수문학 작품의 번역소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야모토 테루의 「해안열차」(1·2) 「사랑은 혜성처럼」과, 신에 여류작가 쓰지 히토나리의 「클라우드」,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가장 강력한 노벨상 후보로 꼽혔던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 등을 번역해내기도 했다.

중국관련 전문출판사를 표방하고 재작년에 문을 연 삼문출판사도 ‘일본현대문학대표작가’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다. 순수문학 속의 SF적 요소로 특징적인 시마다 마사히코의 「악마를 위하여」를 비롯해, 무라카미 류의 「코인 로커 베이비스」, 야마다 에미미의 「열대, 안락의자」 등을 내놓았다. 이처럼 시리즈나 집중적인 단행본 출간은 아니더라도 한뜻, 동인, 동하, 해누리, 형제교역 등의 출판사에서 후지사와 슈헤이, 시마무라 자부로 등의 작품을 최근 출간해 내기도 했다.

아직은 10여명 정도의 소개에 그쳐

3, 4년 전, 무라카미 하루키를 번역·소개하여 지금의 일본문학 붐에 단초를 제공한 모음사와 문학사상사도 역시 한두 종 신간번역서를 내고 있다. 현재 한양출판으로 흡수된 모음사는 당시 무라카미 하루키 전집까지 기획하며 일본에서는 이미 사그라들었던 하루키 붐을 한국에서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다. 하루키는 당시 한국의 젊은 독자들의 관

심의 표적이 됐던 인물로 일문학 전공자 김난주씨의 번역으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양을 둘러싼 모험」 「일각수의 꿈」(1·2) 「오후의 마지막 잔디밭」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노르웨이의 숲」 등 상당량이 번역돼 나왔다.

하루키 붐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를 국내에 출간했던 문학사상사는 이후 「댄스 댄스 댄스」(1·2)와 「하루키 단편선」을 펴내면서 모음사와 함께 하루키 붐에 재료를 공급하는 원천이 돼 주었다. 문학사상사는 근래들어 신에 여류작가 사기사와 메구무의 「레토르트 러브」(연작소설)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수필집)를 펴내면 최근의 순수문학 출간붐에 가담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일본문단에서 평가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야마다 에미미, 미야모토 테루, 요시모토 바나나, 무라카미 류, 시마다 마사히코, 엔도 슈사쿠, 오에 겐자부로, 다자이 오사무 등 10명 정도. 이미 알려진 인물들을 제외하고 나면 아직 그 수는 이렇다 할 만큼 많지는 않으나 출판사나 에이전시들이 기획중이거나 계약중인 작가들까지 합하면 앞으로 제법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체계적인 목록을 갖추고

서책과 필묵 속에 파묻혀 살아온 길

제5회 애서가상 받은 월전 장우성 화백

상업성과는 상관없이 출판하고 있는 곳은 두어 곳 정도에 불과하다. 아쉽게도 많은 출판사들이 일본의 주목받는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유명하다 싶으면 3, 4개 출판사가 동시에 그 작가의 작품을 내는 고질적인 이전투구의 양상은 여기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인기작가에 집중되는 경향 여전

가령, 아마다 에이미의 경우는 웅진출판을 비롯해 백서방(「슬픈 회과람」), 한뜻(「나는 예쁜 여자가 좋다」) 등 3곳에서, 무라카미 류는 기원전(「버려진 아이들의 반란」), 서적포(「모든 남자는 소품이다」), 지양사(「사랑과 환상의 파시즘」), 예하(「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등 5개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오에 겐자부로로는 버팀목, 소학사, 깊은사랑, 무한대, 청해, 여명, 보람, 중앙일보사, 백양출판사, 하문사, 신구미디어, 신세대, 꿈이있는집 등 모두 30여곳에서 출판되어 있는 실정. 그리고 현재 에이전시에 계약체결중인 작품 가운데도 새로운 작가들이 아니라 아마다 에이미나 사마다 마사히코, 요시모토 바나나 등에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출판하면 우리의 일본관은 더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웅진출판 김갑수 편집장은 우려한다.

그럼에도 일본문학의 본격적인 소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일본대중문화 수입 논쟁과 더불어 “대중문화의 개방 전에 본격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일본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순수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없이 일본대중문화의 범람은 자칫 일본의 표피만을 보고 왜곡해 이해할 수 있다. “본격문화 그 가운데서도 순수문학에 대한 다양한 소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일본문학 출간부를 바라보는 출판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혜옥 기자



이지도 '꽃구경'의 맛을 즐기는 月田 張遇聖 화백.

최근 한국에서가르림(회장 여승구)에서 선정한 제5회 ‘애서가상’을 받은 月田 張遇聖 화백(83, 월전미술관장)에게는 책과 너무나 가깝게 지내왔기에 오히려 이 상이 새삼스러운 듯싶다. 장서 수천권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글자를 깨우치던 나이 때부터 책과 함께 했던 장우성 화백에게 책이 ‘소중함’ 것이기보다 ‘친숙함’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미술의 길로 들어선 이래 필묵과 서책 속에 파묻혀 지냈지만 특별히 ‘애서’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일이 정서를 중히 여기는 예술이라 중국대가의 작품같은 명문장이나 명시집을 늘 아껴 읽으며 지내는 일이 습관처럼 돼 있기는 하지요.”

시골집 선친의 서재에 꽂 들어찼던 한서적들이 6·25로 풍비박산되면서 그중 일부만을 서울 장화백의 서가로 옮긴 이후 줄곧 모은 소장서가 3천여권을 헤아린다. 이번에 애서가상을 받으면서 100권을 추려 전시회(3월18일~4월4일)도 가졌다.

장화백이 가장 아끼는 책은 조선시대 박제가가 쓴 ‘북학의’ 필사본이다. 정부의 사신

자격으로 어렵게 중국에 가서 온갖 풍속과 생활상 문물 등을 세밀히 조사해 기록한 ‘북학의’는 농기와 곡식이름, 밭의 구획 같은 저술의 꼼꼼함도 놀랍거나 몇백년전의 학자가 일일이 붓으로 적어내린 것을 직접 대하는 감회는 장화백에게 늘 소중하기만 하다.

또 1662년에서 172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안세집의 「七政便放」는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과학적 저술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기록돼, 우리나라 천문학의 수준을 다시금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로 장화백의 특별한 아낌을 받는 책이다.

이밖에도 중국역대명필들의 글씨를 모아 엮은 「淳化閣帖」이나 「三希堂法帖」, 「王右丞集」 「백향산시집」 등 고서 희구본들이 따로이 구분된 미술관 자료실 서가에 그득하다.

하지만 장화백의 3천여권 장서에는 주로 동양예술과 철학, 역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모든 것이 서양화하지만, 요즘 전람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색깔’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장화백의 심정을 책으로 달랜 셈이다. 동양예술에 관한 내용의

‘월전미술관강좌’를 3회째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에서다. 강좌 수강생들이 개방해놓은 장화백의 책들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보면 어렸을 적 봄·가을마다 햇살이 눈부신 날이면 너른 마당에다 명석을 깔고 책들을 펴놓고서 포쇄했던 조상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떠올리곤 한다. 위당 정인보와 이당 김은호 문하에서 한학과 동양화 실기를 익혔던 장화백은 그림과 글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철학’으로 요즘도 중국 당·송대 시성들의 글을 밤새워가며 즐겨 읽는다.

정원에 온갖 우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월전미술관’ 구석구석에 놓인 진귀품들이 그의 예술적 심미안을 짐작케 한다. 장화백은 팔순을 넘기고도 모란이 피면 꽃구경하러 술병 들고 친구를 찾아가 흐드러지게 낭만을 즐기곤 하는 ‘밧’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